

최근의 국제石油市場 동향

—대한석유협회 조사과—

I. 약세기조의 混亂相

현재의 石油市況은 약세, 불확실하며 더우기 혼란스럽다고 묘사된다. 이같은 상황은 다음 세가지 기본요인의 상호작용 때문이다.

첫째, 原油의 공급과잉현상 지속,

둘째, 1986년 상반기중 주요 공업국의 경제활동 둔화로 인한 세계석유需要의 감소,

셋째, 原油 공식가격(official price)에 油種別 일정수준의 할인이 있는 다양한 가격제도의 확산등이다.

이러한 사유로, 原油價는 지난 85년以來 계속 떨어지기 시작, 현재 명목상으로는 78년수준, 실질적으로는 72년수준이다. 비록 86년 1/4분기에 原油價가 하락하리라 예상하였지만, 현 수준과 같은 폭락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다. 美달러貨의 지속적인 약세와 더불어 原油價가急落함에 따라 OPEC회원국 및 다른 原油수출개도국에 미치는 損失은 더욱 커졌다. 지난 7월에 개최된 OPEC총회에 앞서 그달의 原油價는 85년 11월 28\$/B 수준에서 6~7\$/B 수준으로까지 떨어졌다. 지난 4월중순부터 5월중순 사이에 부분적으로 原油價가 上昇되기도 하였으나, 전반적인 경향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일시적인 原油價 상승경향은 지난 4월중 노르웨이의 90만B/D 減産 및 美國의 휘발유 수요증가 예상에 따른 것이다. 지난 6월 유고의 브리오니(Brioni)에서 열린 OPEC총회가 產油量 및 가격에 합의할 수 없었고

休會됨에 따라 OPEC의 무능력만 더 돋보이게 되었다. 그 결과 原油市場은 또 한차례의急落現狀을 겪게 되어 지난 7월말경에는 6~7\$/B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86년 8월의 OPEC총회에서 86년 9월, 10월 2개월간의 산유량을 1,480만B/D수준(이라크 除外)으로 잠정합의함에 따라 하룻밤 사이에 원유가는 4~5\$/B이나 上昇하였다. 하지만, 上記 합의사항의 준수가 불확실하며, 지난 6, 7월 및 8월의 생산수준이 1,900만~2,100만B/D 수준으로 높이 지속되어 온 때문에 또다시 1~2\$/B 떨어지게 되었다.

86년 향후의 油價安定여부는 OPEC총회 합의사항을 제대로 준수하는가, OPEC이 가격안정화를 위한 또 다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합의사항의 준수 및 감시를 위한 메커니즘이 OPEC의 신뢰성을 높였다고 인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OPEC의 현안목표인 시장안정화와 自國의 적절한 收入확보를 위한 또다른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86년 原油시장에 주요영향을 미친 要因은 석유를 포함한 에너지의 需給측면과 세계 경제동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공산권을 제외한 세계 에너지需要는 지난 몇해동안 매년 2~4%씩 증가하였지만, 전체수요의 78%를 OECD諸國에서 차지하였으며, 또한 同地域의 에너지수요증가율이 저조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더우기 OECD諸國의 石油需要는 금년에 증가로 예상되지만 지난 83년 중반기부터 84년 중반기까지의 미미한 증가를 제

외하고는 80년대 이래 계속 감소되어 온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OPEC이 原油에 대한 수요가 79년의 3천 백만B/D에서 85년에는 1,550만B/D로 계속 감소되어 온 점이다. 이에 따라 세계석유시장에서의 OPEC의 占有率은 81년의 49.1%에서 85년에 29.1%로 줄었다.

한편, 석유수요의 감소요인은 다음과 같다.

① 84년을 제외하고 70년대 후반부터 85년까지의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를 들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와같은 경제침체는 周期的 要因, 선진국들의 保護貿易主義, 그리고 自國통화가치의 안정 및 인플레이제를 위한 緊縮財政실시등에 따른 것이다.

② 石油의 輸入依存度, 특히 OPEC으로부터의 수입 의존도 감축을 목표로 한 선진국들의 정책전환도 요인의 하나이다. 이 정책전환에 따라 한편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을 추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石油대신 他에너지源으로의 燃料代替경향이 나타났다. 즉 OECD諸國의 重質油消費가 79년 9,500만B/D에서 85년 4,800만B/D로 감소된 것을 보면 명확해진다. 이같은 重質油소비의 감소는 물론 에너지절약 및 熱效率改善에 따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石炭이나 가스 또는 原子力에너지로의 燃料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③ 석탄이나 가스등의 低價현상과 공급과잉이 상대적으로 석유, 특히 OPEC 석유에 대한 수요를 격감시켰다.

供給側面에서 보면, 지난 몇해동안 非OPEC지역 產油量이 급증함에 따라 OPEC의 시장점유율은 침식당해왔다. 공산권을 제외한 非OPEC지역 산유량은 1976년 1,400만B/D에서 1985년 2,300만B/D로 신장되었으며, 공산권 純수출량과 NGL 생산분을 포함하면 거의 2,900만B/D에 달한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81년의 경우처럼 OPEC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II. 原油價 인하압력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지속적인 수요감소와 공급과잉속에서 油價는 필연적으로 인하요인을 갖게 된다. 따라서, OPEC의 기준油種인 A-L油의 가격은 81년 34\$/B에서 점차 떨어져 82년에는 29\$/B로, 85년에는

28\$/B로 하락하였다. 적정가격 維持를 위한 협력 및 그에 따른 손실의 분담요청을 非OPEC이 거절함에 따라 石油市況은 더욱 큰 혼란에 빠져들었다. 지난 3년 동안 OPEC은 非OPEC의 市場占有率 확대 및 자신의 시장점유율 침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이러한 우려가 나타났는 바, “OPEC이 더 이상 油價를 방어하려고 않는다, 또는 방어할 能力이 없다”고 非OPEC산유국들에게 위협적으로 표명했다. 불행히도 이러한 表明은 무시되었으며, 마침내 작년 12월 제네바총회에서 OPEC의 대다수 회원국들은 OPEC을 위해 적정수준의 시장점유율 확보정책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低油價가 86년의 석유산업 및 세계경제 전반에 미친 영향은 연구논문 및 신문에 많이 발표되었으며, 지금도 그에 대한 論亂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低油價로 인한 영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반적으로 소비국에서는 原油價가 下落됨에 따라 경제활동의 촉진, 인플레이 및 失業率의 감소, 貿易收支의 조정등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OECD지역의 경제성장률은 작년의 2.3% 증가에 비해 올해는 3~3.5%의 증가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증가율은 2/4분기의 美國경제가 부진함에 따라 수정됨으로써 올해의 예상증가율은 현재 2.6% 선을 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올 2/4분기의 경기부진이 석유 및 가스産業의 침체에 기인한 것이라는 86년 8월 20일자 International Herald Tribune紙 기사는 매우 흥미롭다. 低油價에 대한 환상은 이제 분명히 사라져가고 있다.

OPEC을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에 있어 86년은 어려운 해로 기억될 것이다. 물가문제, 세계수출입의 전반적인 부진 및 加重한 대외부채등이 개발도상국 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주는 요인들로 되었다. 石油輸出國이 개발도상국의 국내총생산(GDP)의 거의 45%를 차지함에 따라 低油價로 인한 석유수출국의 경제침체가 開途國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따라서 原油價 폭락은 개도국 경제에 逆效果를 미치고 있다. 그 결과, 86년 경제성장률은 2%를 초과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原油價 폭락에 따라 일부 산유국들이 자국의 막대한 負債를 상환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국제금융부문에 도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석유산업 및 에너지 프로젝트등의 부문에서도 곧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원유가 하락에 따라 석유회사들의 收入이 감소되고 그들의 資金支出이 삭감됨에 따라 석유회사 財政부문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만약 86년중 평균원유가를 15\$/B로 假定하더라도 美國 13개 石油會社들의 收入감소는 55억달러에 달할 것이다. 대규모의 석유회사들이 자사의 투자, 개발비를 작년보다 30% 삭감함에 따라 소규모 석유용역회사들의 破産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石油會社들도 자체적으로 銀行에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넷째, 需要측면에서 볼 때, OPEC사무국은 공산권을 제외한 86년의 세계 石油 수요를 작년보다 겨우 1.76% 증가한 4,624만B/D로 추정한다. 이와같은 수요침체는 석유시장의 不安定性 및 석유가격이 결코 오랫동안 현재와 같은 약세를 보이지는 않으리라는 추측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석유의 輸入依存度 감소와 他에너지源에의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정책도 석유에 대한 需要抑制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다섯째, 供給측면에서 보면, 非OPEC지역의 공급량은 공산권 純輸出과 세계 NGL 생산분을 포함하여 85년의 2,900만B/D에 비해 2,891만B/D로 예상된다. 만일 油價가 계속 약세수준을 면치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非OPEC의 산유량은 더 크게 줄어들 수도 있다. 즉, 冬節期 수요증가에 따른 價格上昇기대 및 정부정책에 따라 86년의 非OPEC생산량은 현 豫想值인 昨年對比 0.31% 감소보다 더 크게 감소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섯째,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代替효과는 제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미국의 重質油소비는 올해 205일 동안의 소비가 前年同期에 비해 13% 증가한데 반해, 86년 7월 한달의 소비는 전년同월에 비해 19.1%나 증가하였다. 이탈리아의 경우도 重質油의 86년 상반기 소비가 전년동기對比 12%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日本의 重質油소비는 86년 1/4분기에 前年同期對比 11% 감소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석유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深化시키고 있다.

단기적인 油價약세가 선진국의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代替에 관한 기존정책을 변동시키기에 아직 미흡하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石炭 및 原子力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 投資費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油價가 15~20\$/Bbl 수준이 되더라도 에너지절약 및 代替事業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73년부터 84년사이 국내총

생산 1,000달러당 energy intensity는 0.9TOE에서 0.73TOE로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는 0.59TOE로 더욱 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예상은 향후의 原油價를 포함한 여러 요인에 의해 바뀌질 수 있다. 어떤 분석가들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既存投資가 철회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원유가격과는 별 상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Ⅲ. OPEC 합의의 영향

지금까지 油價下落到 따른 단기적 전망을 분석하였으므로 이제는 지난 8월 OPEC총회(제네바) 합의가 石油市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본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제네바에서의 產油量 합의에 따라 油價는 분명 호전되는 기미가 보였으며, 同合意의 철저한 준수가 가격수준 및 시장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가능성이 종종 무시되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점에 관한 가장 중요한 要因의 하나는 지난 6월이후의 높은 산유량수준을 들 수 있다. 최근의 통계를 보면 OPEC의 3/4분기 산유량은 평균 1,890만 B/D로, 이것은 同分期에 原油재고가 200만B/D 이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4분기의 原油在庫增加를 감안하면, 소비자들은 4/4분기에 적정수준 이상으로 在庫를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원유가격은 상당한 下落要因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의해 OPEC은 브리오니총회에서 요구한 수준으로 원유가격을 올릴 수 없게 되었다. 실제 소비자들은 87년 1/4분기에 自國의 원유재고량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非OPEC 산유국들이 OPEC에 협조를 하여야만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市場은 큰 혼란상태를 계속할 것이라는데에 아무런 異見이 없다. 결론적으로 市場安定化를 위한 첫번째의 시도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며, OPEC회원국을 위한 適正수준의 가격제도 유지 및 誇터割當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

(OPEC Bulletin 1986. 10月号)

